
기획논문 1

‘X로’ 연구

여기에 실는 네 편의 논문은 “‘로’ 구문의 통시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은 집담회의 결과로 작성된 것이다. 중세한국어 및 한국어문법사를 전공하는 필자들이 모여 ‘로’의 통사·의미론적 성격과 형태론적 특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지금까지 크게 주목되지 않은 ‘로’의 문법적 양상을 네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로’는 흔히 부사격 조사로 불리며 매우 다양한 의미 기능을 보인다. 즉, 서술어와 구문에 따라 ‘방향, 방식, 재료, 도구, 방법, 변화, 자격, 신분, 원인’에 이르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격조사로서의 쓰임 이외에도 ‘진실로’, ‘절대로’, ‘저절로’ 등의 부사에 나타나는 ‘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일견 새로운 부사를 만들어 내는 파생접미사처럼 보이는 이들 단어의 ‘로’는 어떠한 문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처럼 ‘로’가 보이는 형태론적·통사론적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대한국어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기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는 역사적 관점에서 ‘로’를 조망하였다.

첫 번째 논문은 이현희의 「‘르로’는 조사 ‘로’의 이형태인가?」이다. 현대한국어의 ‘걸로’, ‘뭉로’, ‘무얼로’에 보이는 ‘르로’는 조사 ‘로’의 이형태인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명사어간의 일부임을 밝혀내었다. 그리하여 ‘거’와 ‘걸’, ‘뭉’와 ‘뭉’, ‘무어’와 ‘무얼’은 쌍형어간을 이룬다고 파악하였다. 후자의 ‘걸’, ‘뭉’, ‘무얼’ 등은 르 말음을 가지는 명사어간 ‘말[言],

‘날’[日] 등과 동일한 음운론적인 행동을 보였다.

정혜린·백채원의 「중세한국어 [자격]의 ‘로’ 구문에 대한 연구」는 조사 ‘로’의 [자격]의 의미 기능에 주목한 논의이다. 이때의 [자격]이란 주어나 목적어의 신분 및 지위, 명성, 명칭, 두드러진 속성 등을 가리킨다. 이 연구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NP로’의 다양한 양상을 검토하고, [자격]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NP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세 번째 논문인 김한결·장고은의 「‘날로’, ‘세세로’ 유형 부사의 역사적 연구」는 앞서 언급한 ‘로’의 네 가지 성격 중 어휘화한 단어의 일부인 ‘로’에 대한 연구이다. [시간의 반복]을 의미하는 ‘X로’ 유형의 ‘날로, 달로, 히로(> 해로)’와 ‘XX로’ 유형의 ‘대대로, 때때로’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NP로’의 투명한 통사적 구성으로부터 의미의 변화를 겪으면서 하나의 어휘로 어휘화를 겪는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밝혔다.

마지막 논문은 김태우의 「중세한국어에서 목적어에 결합하는 ‘로’에 대하여」이다. 이는 일부 [대상]에 결합하는 ‘로’에 대하여 그것이 쓰인 문맥과 중세한국어 언해 문헌의 원전인 한문 원문과의 대응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언해문의 ‘로’가 한문 원문의 ‘以’와 유의미하게 대응한다는 점과, 전치된 목적어의 유무도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네 편의 연구에서 우리는 한문 원전과의 대조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원문을 번역한 중세한국어나 근대한국어 시기의 언해 문헌이 가지는 특성상 한문 원문과의 연관성을 떼어 놓을 수 없다. 이번 특집에서 지면 관계상 ‘로’의 복잡다단한 문법적 양상을 총체적으로 다 다루지는 못하였다. 다만 ‘걸로’ 및 ‘거로’의 ‘로’, [자격], [시간], [대상]의 ‘로’ 등 현대한국어에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로’의 양상을 역사문법적 관점에서 주목해 보았다. 이를 통해 그 복잡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